

동지가 금속노조다!

대전충북지부

15호

발행인 : 김정태
발행일 : 2020년 11월 23일(월요일)
발행처 :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

노조파괴법 저지! 전태일3법 쟁취!

11.25 총파업! 총력투쟁!

- * 16시 청주현대미술관 앞
- * 15시 대전 더불어민주당사 앞

문재인 정부의 역대급 노동개악!

①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!

'사업장 내에서 쟁의하면서 조합원 집회, 선전전, 교육 이라도 하면 불법이 됩니다. 민주노조의 활동을 제약 하고 아예 손발을 묶어버립니다.

② 상급단체 간부 출입 금지!

상급단체 간부 출입과 노조활동 모두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. 금속노조 위원장, 지부장, 상집간부들이 지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. 산별노조를 완전히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립니다.

③ 단협 유효기간 2년 → 3년으로 연장!

단협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리면 교섭도 3년마다 열립니다. 우리 권리인 단체협약을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3년에 1번으로 줄어듭니다. 지회장 임기 동안 단협 개정을 못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.

정부와 민주당은 강행모드!

노동법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는 12/3(목) 예정이고 정기국회는 12/9(수) 종료됩니다.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되지 않더라도 단독 처리해서라도 강행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. 11월말~12월초에 국회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이 필요합니다.

11.25 총파업! 총력투쟁 시작!

금속노조는 11/25(수) 전체 조합원 주야2시간 이상 파업에 돌입합니다. 노동자들의 강력한 경고의 뜻을 국회에 보여줍니다. 12/3(목) 환경노동위원회 회의가 열릴 때는 전체 확대간부들이 서울에 집결해서 노동개악을 저지합니다. 이번 노동개악은 투쟁하는 민주노조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. 금속노조 약화가 가장 핵심적인 목표입니다. 물러섬없는 투쟁으로 노동개악 반드시 저지합니다!

[금속노조 총파업 총력투쟁 투쟁지침]

- ▲ 11/25(수) 금속노조 전 조합원 경고 파업 : 주야 2시간 이상 파업 돌입 (총회, 교육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파업투쟁에 복무)
- ▲ 12/02(수) 금속노조 전국 확대간부 상경투쟁 : 전체 확대간부 서울 집결
- ▲ 11/24(화) ~ 12/09(수) 국회 앞 농성 : 전체 지부별 순환해서 결함